

일감 스님의
암각화 기행

봐라, 아리랑 춤이다



두 팔을 활짝 펴서
아리랑 춤을 춘다

둥글게 둥글게
마음을 모아서

두둥실 떠오르는
고운 님을 향하여
독수리 날개로
노래하고 춤을 춘다

슬픔도 기쁨도 하나로 얼싸안고
미래로 가자고 아리랑 춤을 춘다

까잘만, 싸이말루이 따쉬

산맥을 넘고 국경을 넘어 아주 멀리 떨어져 살아도, 얼굴 생김새가 비슷하고 풍속이 비슷한 사람들이 있다면, 같은 민족이거나 민족은 다르더라도 같은 문화권에 살았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춤을 추는 모습이 비슷하다면,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춤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그 민족의 특성이 잘 반영된 모습으로 춤추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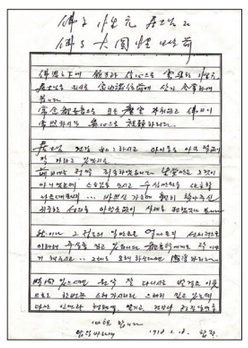
우리 민족의 춤추는 모습을 '덩실덩실' 춤을 춘다고도 하고, '아리랑 춤'을 춘다고도 한다. 이름이야 어찌 부르던, 마치 큰 새가 하늘 높이 날아올라서 너울너울 날갯짓을 하듯이 춤을 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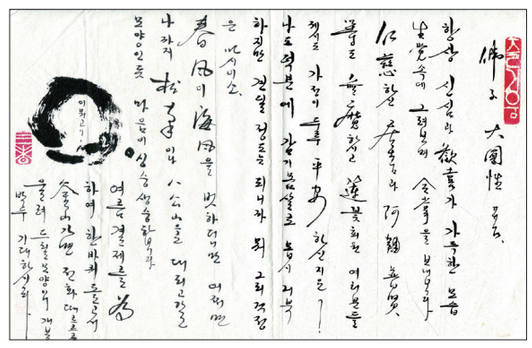
이 암각화는 우리 선조들이 하늘을 나는 새처럼 크고 높은 뜻을 품고 살아가고자 하는 염원으로 아리랑 춤을 추는 모습과 같아 보인다. 그림의 솜씨가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좋은 그림이다.



대원성보살의
선지식 '산중서신'
㉓ 혜인 스님 2

늘 미혹중생 마음 살핀 선지식





〈서신1〉

불자 성원 거사님과 대원성 보살님 전

佛恩之下(불은지하)에 원력과 신심으로 雲集(운집)한 성원 거사님을 위시로 家內諸位(가내제위)전에 삼가 합장하여봅니다. 常念(상념) 관세음으로 모든 마장 자취 없고 불일(佛日)이 常照(상조)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거사님 건강 여여하시고 아이들도 아무 탈 없이 잘 자라고 있겠지요? 전일에는 정말 죄송하였습니다. 생각만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스님을 모시고 수 십 만원을 화주할 마음 때문인지… .

바쁘신 가운데 충실히 찾아주신 귀중한 성의를 아랑곳 없이 실례를 범했나봅니다. 혹이나 그 정도의 일만큼은 얼마든지 선의적으로 이해해 주실 줄 믿고 있습니다. 관음행에게도 잘 이야기해 주시고 그래도 오해하신다면 감수하리라. 시간 있으시면 워낙 잘 다니시는 발걸음 이곳을 한번쯤 스쳐가시리라 의례히 믿고 있는데 다만 인연과 형편에 맡기고 건강과 정진 일여를 심축합니다.

1978. 6. 18 합장

〈서신2〉

불자 대원성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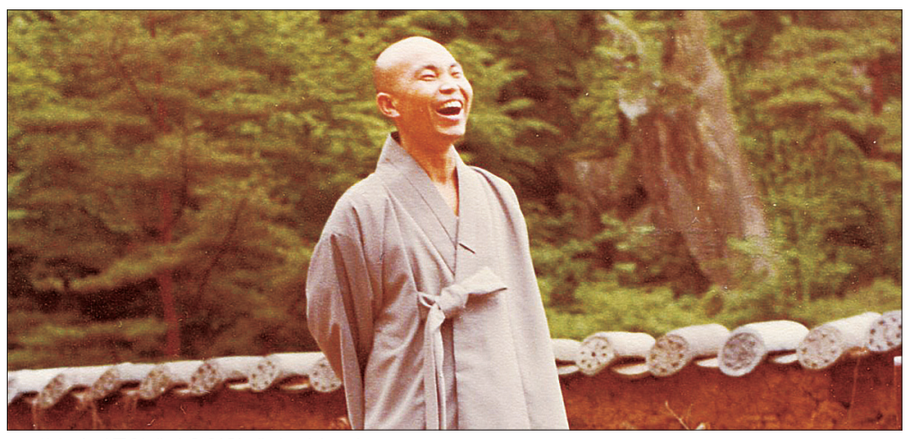
한상 신심과 환희가 가득한 모습 생각 속에 그려보며 합장을 보냅니다. 인자하신 거사님과 아란, 보현 등도 無魔(무마)하시고 연꽃회원 여러분께서도 가정이 두루 평안신지요?

나도 덕분에 감기몸살로 몹시 거북하지만 견딜 정도는 되니까 뭐 그리 걱정은 마이소. 춘풍이 梅風(매풍)을 벗하더니만 어쩌면 나까지 송남이나 팔공산으로 데리고 갈 모양인 듯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여름 결제를 위하여 한 바퀴 돌고서 부산 가면 전화 때 르릉 올려 드릴 모양이니 개봉박두 기대하시라.

〈서신1〉은 쓰님께서 약천사 불사를 위해 동분서주하실 때 주신 서신이다. 서신 속의 그 날(전일)은 스님께서 큰 스님 모시고 바삐 외출을 하시느라 스님을 제대로 뵐 수가 없었던 날이다. 스님 입장에서는 찾아온 손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돌려보낸 꼴이어서 마음이 많이 쓰이셨던 것 같다. 이심전심으로 다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면서도 그 마음이 그런 게 아닌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것이다. 주는 마음은 주는 마음대로 조심스럽고, 받는 마음은 받는 마음대로 표현할 길이 어렵다. 마음이라는 게 눈으로 볼 수 없어 힘든 것이리라.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에 자유자재할 수 없는 미혹중생의 마음을 살피시느라 노심초사하시는 스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서신이다.

〈서신2〉에서는 스님의 천진난만한 마음이 물씬 풍긴다. 출가자이기 이전에 사람인 것이다. 사람에게 가장 우선하는 것이 사람인 것 같다. 사람이 사람 없이 살 수 없음이다. 주고받는 인사가 사람의 첫 번째 일인 것 같다. 서로의 안부가 궁금하다는 것, 그것이 세상사의 시작이고 끝인 것 같다. 다가오는 겨울을 보내고 또 다시 봄이 찾아오면 다시 서신을 꺼내볼 것이다. 오래 된 짧은 서신 하나가 그 봄엔 큰 공부가 될 것 같다.



30여년 전 지족암에서 촬영한 혜인 스님 모습.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